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國家總動員體制確立
聖業完遂에 一路驀進

社說
近衛內閣의 基本國策要綱

大東亞經濟圈確立
商相, 自給自足經濟政策力說

意味深長한 松岡外相의 答辯

三笠宮殿下御昇進
竹田宮, 李鍵公殿下께서도

白峰, 赤間兩社 神宮으로昇格

官界新體制 初委員會

七月二十八日南京東亞俱樂部에서열린 中立文化協會成立式에서 人事하는 阿部全權大使

米內首相敍位

奧村課長實行

基本國策發表와各界
新經濟體制確立에
財界는積極的協力

中島解黨派 斡旋人會議

農林水產物價格 委員會

生絲配給統制 一團體指定

農村部門各團體
農業及農家安定發展策에好意

官民協力下에
統制機構整備期待
產業界

事變處理에置重
松岡外交의基本動向

大橋氏外務次官受諾

橋田文相
國體精華發揚等
今日教學刷新方針闡明

山崎達之輔氏等 風見法相訪問

適材適所 陸軍異動評

對第三國通商 從速調整期待

滿, 鮮拓總裁 二宮中將談

辭令

日獨伊三國攻擊에對備
義務兵制를力說
米陸軍長官上下院에書簡

하바나協定과 米政府의解釋

米紙의報道 輸出許可制實施와

匈, 羅交涉開始?
失地回復問題圍繞

最高會議에서 蘇, 外交方針聲明?

獨占領地域內의 電話連絡停止說

定期敍位

菊地新平壤憲兵隊長 來三日熊本發赴任

人事·集會

實物後場賣買市勢

積極的強壯劑
ビクラ
비구라
適應症
心身의過勞, 神經衰弱, 食慾不振, 結核, 肋膜炎, 腺病質, 重病後及手術後의恢復期, 新陳代謝障碍, 榮養障碍, 精力減退, 四肢冷感等。
(シロップ狀液劑) 二五〇瓦 二圓五〇錢 一瓩入 七圓八〇錢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林源十郎商店
岡山市紙屋町
全鮮有名藥店에販賣함

BIKURA
弱体強化
ビクラ는液劑並今回新發賣의錠劑의二種有함·全身의神經系統을強化하고食慾을旺盛케해서榮養을補給하며貧血을고치고精力을增强하여病弱을一掃함。一般身體狀態의改善에極히有効한强壯劑이다
(案內書進呈)
VK36

國防色羅紗專門
卸商 ミナト羅紗店
釜山府宝水町一ノ二四
電話特三七六八番
申込次第見本進呈

レポスキン
にきびソバカスホクロ取りに
그런데
キンシ化粧研究所

戰時生活體制確立
銃後奉公에새出發
消費規正强化實踐要綱決定

消費規正强化實踐要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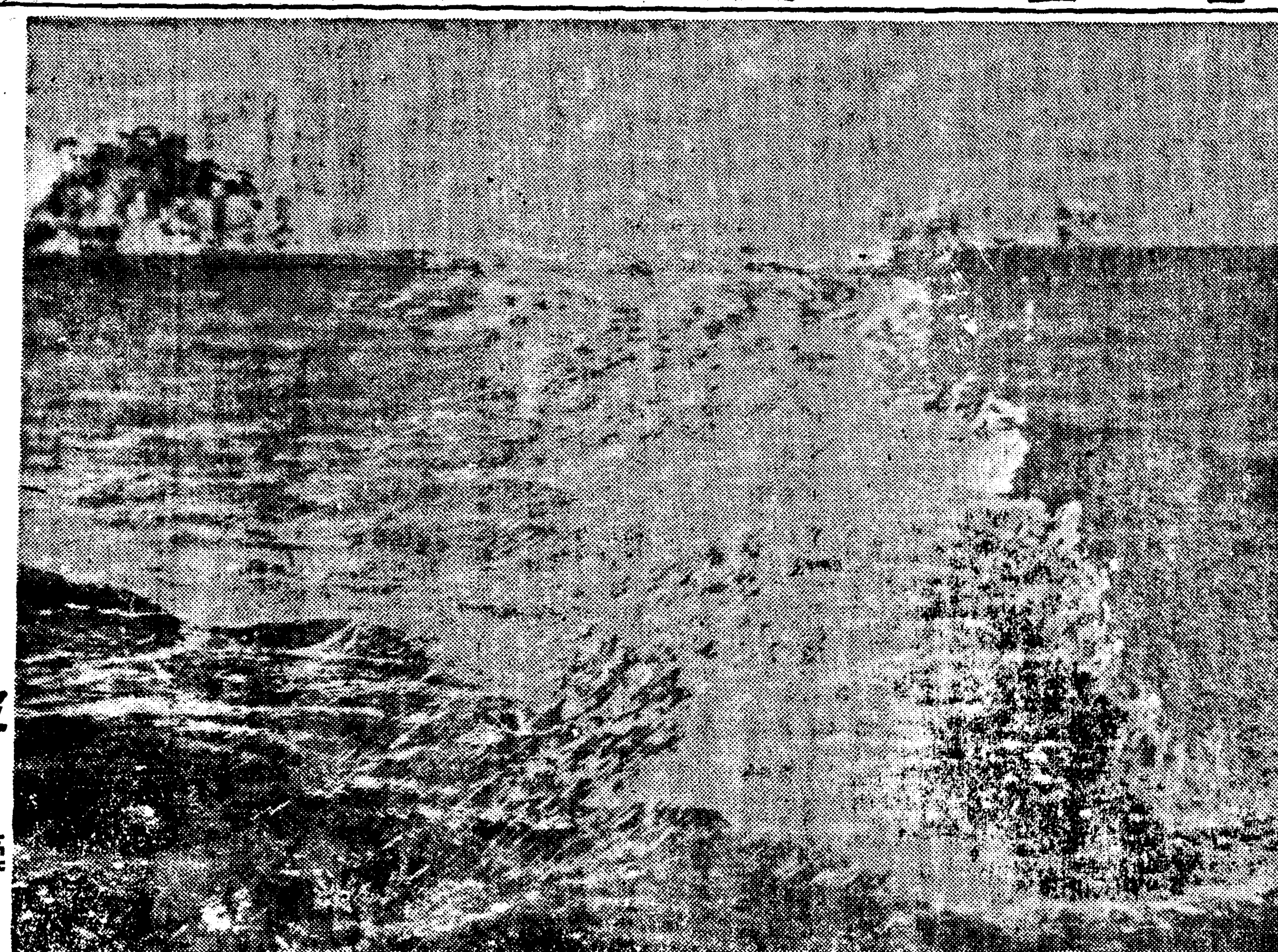
第一、積極的勸奬事項

第二、消極的抑制事項

遊興娛樂의禁止令
消極的抑制事項의豫想內容

官公署用紙節約
八月부터一割을減量
官報도四段制로改正發刊

川岸中將着任



波濤

거리의話題·萬圓當選
朝鮮最初의幸運兒는
安東郡蠶種製造業堀內氏

最初의幸運에 職工이當選
報國債券第一、二回抽籤에

五錢알미늄貨 八日부터行勢

三陟鐵道
一日부터營業開始

自轉車專門賊

雲山鑛山坑內에出火
廿七名의鑛夫瀕死
殺到한家族으로現場은騷亂

昨夕、旭町에火災
損害約二萬圓·原因은失火?

今日…東風小雨…

第三回 東京在學生軍 朝鮮軍 代表 對抗拳鬪競技戰

◇八月四日(日)午後二時半
◇京城運動場

主催 朝鮮拳鬪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

入場料 指定席 1·50 普通席 1·00 學生 0·70

【東京軍】

金丙玉　沈命燮　鄭鳳鉉　康仁錫　文學成

【朝拳軍】

李鳳成　朴基鉉　金明錫　朴公在　全榮晃

町會事務員을召集
事務講習會開催
十五日부터二日間府民館에서

大邱國際館(映畫館) 三十日附認可指令

松濤園의浴客 每日二萬餘名

航空郵便物激增
全朝鮮에六萬九千百餘通

平和産業의失業者 道內千二百名
當局、轉職斡旋에積極努力

沐浴타가失足 小學生이溺死

一日부터事變債券 無料保管取扱開始

仁川署司法係員 全部創氏改名

露店商人을團束
無許可者는斷乎嚴罰

工事單價二倍引上
工事請負契約의是正·工事損失金補償等
業者의要望三懸案遂實現

스포-츠

決勝戰의國拳鬪 無勝負로終了

全日本學生軟式庭球 尹菊泳組(法政)優勝

日滿對抗拳鬪 來五日日比谷에서

九大軍이優勝 全國帝大오-푼大會

關東學生馬術大會

全國高校水上

米國職業野球戰績

◇아메리칸·리-그

◇내쇼날·리-그

長豐後村城田穀 凶作을未免

八月二日(金曜日)陰六月二十九日 ▲干支 丁丑 ▲日出 午前五時三六分 ▲日入 午後七時四一分 ▲南中 午後○時四○分 ▲月出 午前三時四八分 ▲月入 午後六時七分 ▲滿潮 四時五分 ▲干潮 十時三五分

딱총

神秘寶庫의處女地 撫松、長白兩縣開發

要地에技術員派遣코實地調査

鐘紡과開拓總局에서

【咸興支社發】 만주국의 보고(寶庫)중에 비경(秘境)으로 무진장의 부원(富源)이 시키고 잇는데 이 개척을 위하여 ... 무송(撫松) 장백(長白) 두현을 무대로서 그 개발을 ... 종연방적회사에서는 일찍부터 ... 조사대를 보내어 ... 근일중에 장백현 내의 ... 이십여명을 장백현에 보내어 조사를 ...

張鼓峰事件 記念表忠塔竣工

【雄基】 장고봉사건 기념 표충탑 ... 원래 정고봉에서는 ... (사진은 입소봉고제)

食糧買出票發行 資格者六千世帶

開城서는今月三日부터實施

【開城】 기보=개성은 아직식량(食糧)에 그 내용은 이러하다 즉 「량매출표제(食糧買出票制)」가 실시 ... 세대주의 주소 성명 ... 가족 동거자수 등을 ...

長湍志願兵 入所奉告祭

【長湍】 금번 육군지원병으로 ...

通行料過徵하는 營利渡船에痛棒

咸南道서委任經營者를檢索

【咸興支社發】 도로가 불비한 함남 ... 도선(渡船)이 ... 사인(私人)에게 ... 통행료를 ... 허가하였을때 설비유지수 등이다

上水道擴張工事로 元山食水飢饉解消

六萬名에給水해도念慮업다

【元山】 해마다 여름철이면 단고잇는데 현재상수도 급수능력 그러므로 금후 원산부민의 급수 ... 육만명 ... 한다

氷菓、合成淸酒等 最高販賣價決定

江原道告示를發表

【春川】 강원도산무부 ... 一、豆腐의最高

咸興、興南兩市街 都計를實地調査

總督府勝原技師來咸

【咸興支社發】 흥남 함흥의 도시계획 ... 승원(勝原)기사가 ... 시찰 ...

憧憬의北海道로 三十日밤元山港에서

三百餘名家族先發隊出發!

【元山】 남조선지방 노동자들 ... 북해도 방면으로 ... 떠나가사람이 ...

火藥類로製造한 玩具販賣를禁止

仁川署各家庭에注意

【仁川】 인천서 보안계에서는 ...

衛生映畫의밤

開城과開豊郡에서

【開城】 이번 개성의정가에서는 ...

漁村中堅人物 養成講習會開催

【春川】 어촌의 미진한 ...

價格不表示商店 四十二處를摘發

開城署의電擊的檢索

【開城】 개성서에서는 ...

陸軍志願兵入所

內水排出問題로 關係局에또陳情

永登浦住民代表三氏

【永登浦】 이번장마에 의한 ...

元山不良車檢查 實로百廿五臺

【元山】 원산부에서는 ...

麟蹄꿀이全滅!

오래동안장마로벌이굶어죽어

朝鮮產合成淸酒最高販賣價格

區分	位	...
[illegible]		

愛國班長大會 面單位로開催

陸軍特別志願兵 平原郡에九名

國勢調査日에 團體旅行禁止

漁村映畫班巡映

府營住宅을要望

仁川俸給生活者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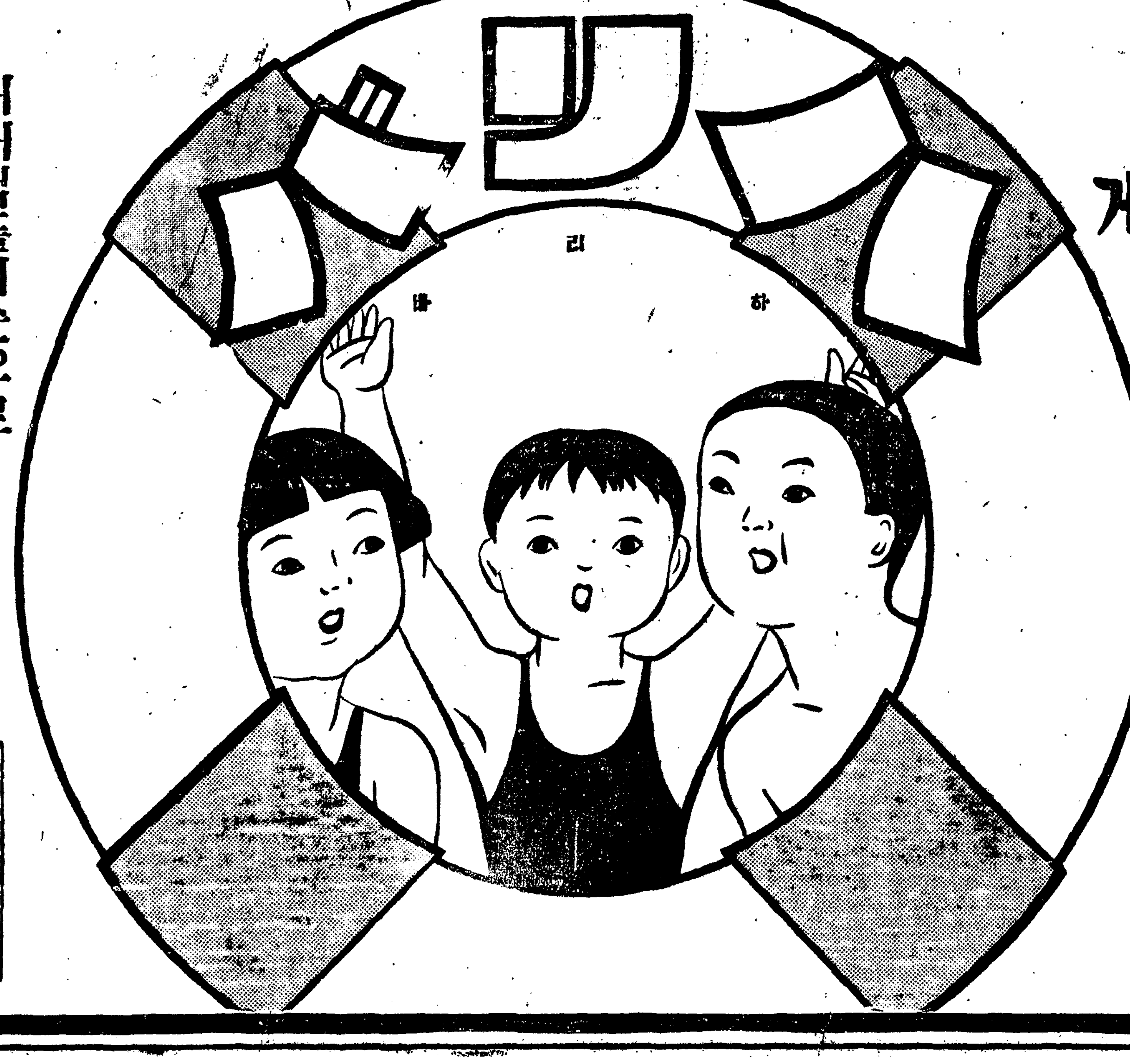
每月一日을 愛國日로統一

被害者업는 强盜事件

門前汚物山積

江陵邑民非難沸騰

金庫窃取犯 淸津署서逮捕



허약·병약한아동에게

여름동안에 몸을단련식이자

여름철이야말로 어린이들의 천하일것입니다 허약한신체를 여름방학동안에 잘단련식혀서 강철같이튼々한몸으로 가을을마지하시도록하여주십시요 즉新學期를當하여 신병으로 學校에결석치않도록 비타민AD를 체내에충분히 보충식여주시기 바라마지안는바입니다

비타민A는……호흡기의粘膜과피부의저항력을强化식히고 허약한몸을 병균이나병충이침입을방어함에 없지못할영양소입니다

비타민D는……齒牙와骨骼을만들어주는 중요한영양소로써 一生을 튼々한體格으로 만듬에 꼭필요합니다

最近 어린이들의保健劑로써「하리바」가 널리賞用되고있음은 그 귀중한비타민AD를 무슨약보다도 풍후히함유하고잇기때문입니다

어머님들의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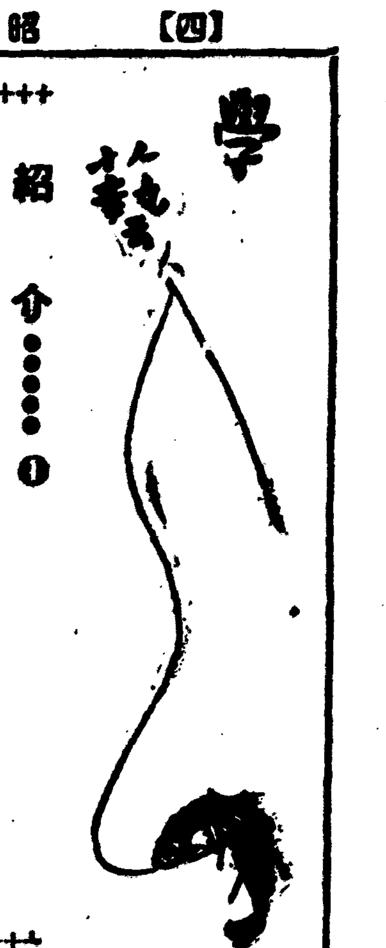
「하리바」는 北洋의深海에살고있는 老大魚의肝臟中에함유되어잇는 極히濃厚한비타민AD를 짜내서 그흉한비린냄새가나고 위장에장해를주는 有害無益한기름을 뽑수잇는대로 除去하여비타민AD의덩어리를 그대로확수한과학적장치로써 잘溶解될뿐만아니라 효력이어느알에도고르러허함유되도록만든 糖衣小粒입니다 어린이들은一日一—二粒으로 충분하며맛이좋음으로 家庭에서어머니의손으로服用식히기편한 여름방학동안의 영양보급제로써 호평을받고있는약입니다

一日量		
○		
○	○	
○	○	○

百粒…二圓五十錢
五百粒…十圓五十錢

東京·大阪 田邊商店

HV-K-96



學藝

原本訓民正音의發見

紹介……①

方鍾鉉

★中聲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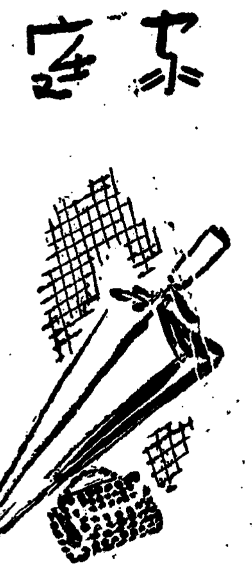
中聲이란것은 字韻의 한가운데 있어서 初聲과合하여 音을이루는것이니라. 呑字의 中聲은 ㆍ이니 ㆍ는 ㅌㄴ의사이에있어서 [illegible] 이되고 卽字의 中聲은 ㅡ이니 ㅡ는 ㅈㄱ의 사이에있어서 즉이되고 侵字의 中聲은 ㅣ이니 ㅣ는 ㅊㅁ의사이에있어서 침이되는 類이니라. 洪覃君業欲穰戌彆도 모다이와 같으니라. 二字를 合用하는것은 [illegible] 서로合해서 어그러지지 아니하니라. 한字中聲의 ㅣ로더부터 서로合한者가 열이니 [illegible] 二字中聲의 ㅣ로더부터 서로合한者가 넷이니 [illegible] 깊고 얏고 闔되고 闢되는소리에 아울러 能히 서로 따르는것은 혀가 펴지고 소리가 얏아서 開口하기에 便한까닭이니라. 또한 可히 사람이 물건을 열매 贊하여 通치아니한바 없는것을 볼수있는것이니라. 訣에가로되 母字의 소리엔 각기中聲이 있는바 모름지기 中聲에서 闢과闔을 차즈라.

★終聲篇

終聲이란것은 初中을 이어서 字韻을 이루나니라. 卽字의 終聲은 ㄱ이되고 ㄱ는 즈의끄테있어서 즉이되고 洪字의 終聲은 ㆁ이니 [illegible] 類이니라. 舌脣齒喉가 다 한가지니라. 소리에 緩急의 다름이 있는까닭에 平上去의 그 終聲이 入聲의 促急한것과 같지아니하니 不淸不濁의 字는 그소리가 세지 아니한까닭에 終聲에 쓰면 平上去에 맛고 全淸次淸全濁의 字는 그소리가 세인까닭에 終聲에 쓰면 入聲에 맛는지라 그러므로 ㆁㄴㅁㅇㄹㅿ의 여섯字는 平上去의 終聲이 되고 그나머지는 모두 入聲의 終聲이 되나니라. 그러나 [illegible] 八字만으로 足히쓸수있는것이니라. 빗곶이 梨花가되고 엿의갗이 狐皮가되되 ㅅ字로 通用할수있는까닭에 오직 ㅅ字를 쓰는것과같으며 또 ㅇ는 소리가 淡하고 虛하고 [illegible] 中聲이 可히 音을 이루니라. [illegible] 五音의 緩急이 또한 各各 스스로 對가되니 [illegible] 또 半舌의 ㄹ는 마땅히 諺에 쓸것이요 文에 쓸수없으니 入聲의 彆字같은것도 終聲에 마땅히 ㄷ을 쓸것이어늘 俗習이 ㄹ로 읽는것은 대개 ㄷ가 변하여 가벼이 된것이니 [illegible]

合字解

初中終三聲이 合하여야 字를 이루나니 初聲은 或 中聲의 우에있고 或中聲의 왼편에도 있으니 [illegible] 文과 諺을 雜用하면 字音으로 因하여 中終聲으로 補하는것이 있으니 [illegible]



어떤전등이 서늘한가?

촉수보다도 "다마" 나름

가등이나 더운 여름밤에 전기를 희하게 켜노흐면 더 더운듯 합니다. 여기서 전기에서 받는 더운느낌을 될수있는대까지 서늘하게 지낼생각을하엿습니다.

전구 (電球)에서 방사되는 열은 상당히 노픈것입니다. 그래로 동화관제때에주의하지안흐면 화재가 나는수가 만습니다. 어것은 전구가리는것이 어찌『다마』에 다르는지 또씨 원노앗던관계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런것방열작(放熱)은 전구에따라서 퍽틀립니다. 『까-본』전구의 방열도가 배어리면 『다무스텐』전구는 삼십 가스든것은 이십 최신식의 주색망전구는 삼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최신식 전구를쓰면 좋겠지만 이 주색전구가 지금까지는 백촉이하찌리가 업습니다. 대형이니까 일반 가정에는 맛지 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방을시원하게 하느냐하면 최신식의형광등(螢光燈)을 쓰는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오십촉도 잇고 방열량은 겨우 삼정도이니까 일반가정에 장려할수 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국상새전기『다마』를사기도 안되엇스니까 사지안코 서늘한방법을 생각하여야 겟습니다. 그방법이 다음에 들겟습니다.

『세-드』를 바꿀것입니다. 유리로 만든것은 일시적이지오고 그대신 대(竹)나 종이로만든것을 쓸것입니다. 이것도 사지를 말고 손으로만든는것이 조켓지요. 헌우산의뼈나 대를

떡거서 사각갑을 만들고 창호지가든것을 발르신 노끈으로둘을것입니다. 여름

푸른 종이를 느립니다. 유리컷에도 한술비치나 연두색 올새의 종이를 폭이삼분 기러 두서너치식잘라서만히 바르고 밧치런다리면 방전체가 서늘해집니다.

붉은 전기『다마』는 끼지 말것 이촉쩌리 붉은 전기를 밤에 잘때에 켜놋는가정여잇는데 어것은 일부러더웁게 해놋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푸른전구로바꾸어끼십시요.

전기 노흘것, 『코-드』를 가지고 전기를 노피잡어 매여놋는것이 조켓습니다. 전기를 너무 아래달아노흐면 여름에 모기장가튼것이 엇는만큼 위험합니다.

◇……엄마는 안오고……(미국 국제사진협회에서)

편·식·을·피·하·고 몬저태아의영양을!

임신과영양

우리들의 몸은 두 부분으로 난호여잇습니다. 자손을보키기위한 개체세포(個體細胞)와 번식세포(繁殖細胞)와의 둘로 되어있습니다.

임신…은 번식세포의 작용과는 정비례가되고 개체세포의 작용과는반비례가될니다. 어어는뒤에 말씀드리겟습니다. 그런데이 작용이라는 말을 영양이라는 말과 바꾸어노코 생각해보면 임신은 번식세포의 영양과 정비례가되고 개체세포의

영양…과는 반비례가 된다고 할수잇습니다. 이어것을다시 다르게말하면 번식세포의 영양이조흘수록 임신이잘된다고도 할수업습니다. 그 어유를 말슴드리면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영양을 열이라고 가정하고 그중에서 다섯은 번식세포에소용되는 영양이되고 남어지다섯이 개체세포에

소용되는 영양이 된다면이상적입니다만 사실에 잇서서 개체세포에필요한 영양은 어들수잇는대도 번식 세포에서는 겨우 듬 영양밧게는 차레가 못간다면 암만 거르로는 영양이 조와보여도 그러케 임신율은 조치 못합니다. 이점에잇서서 상류가정에서는 [illegible] 먹기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보다 임신률이 낫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자의 체의향상과 영양을 히 선택하면 막을수 잇습니다. 만일 이것을 게을리하면 임신 **충분**을해도조산 유산을 하는수가 만코난애기도약해서 유아때에 죽어버립니다. 어바대로 영양에편식이업스면 태아도튼튼하고도주아가되어도 알르는지 죽는일이적습니다. 결국 나다를위하여서는 이론은 임입니다 지금 영양과 임신률, 사망률의관계를 수저로표시하면

	良	中	不良
妊娠回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妊娠一人當의死亡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妊娠回數에對한死亡率百分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어것으로보아도 영양나빠지에 따라서임신률은 노파지지만따라서사망률도 노파지는것으로 아시겟지요, 그러게 결론은 이러습니다 즉여자는 어디까지든지 영양에 주의해서 체위를 향상하도록하지 안흐면 안됩니다. 그래서 임신률은 야터도 난어린애는 튼튼한 건강아가 됩니다

지차리우

고양이

햇비치
째ㅡㅇ 째ㅡㅇ
퇴마루에
째ㅡㅇ 째ㅡㅇ
고양이
더위먹고
하품을
하ㅡ흠.

(아저씨)

가정 피서안가도될수잇는 척서법몃가지

바다로 산으로 피서를가는 분외에 가지못하는 우리수겔『어나『사라리-만』을 위해서 서늘하게 지낼수있는법을 말슴드리겟습니다.

조혼비누로세수를 한것

(一) 늘 바쁘신 분이래도 세수할른 잇겟지요. 특히 겸은『오피스껄』들은 『로일젠』속의 거울을도 처다보기 조와하는만치 한심쓰고 삼십전이상주고 조흔비누를 사서쓸것입니다. 깨끗한 느낌과 향그러운 냄새에 얼마간 더위가 물러 갑니다.

특히땀이만히나는 사람들은……

(二) 땀을 만히흘리는분은 여행서 보기에도더웁습니다. 이것을 막을려면 아침에출근하기전에 땀이잘나오는 부분에 땀막는『파우더-』를 발러두십시오. 남자분들이라도 눈에뜨이지안습니다. 땀막는『파우더』의 집이 조혼것 가트면가루분에 석거발러도 조흡니다. 세수를 하고난다음에 얼굴이 번들번들하여더웁습니다 [illegible] 땀막는『파우더-』는 독일무『퍽산』의것이 흡스물도 조코 또 쉬료가 우유인만치 피부에도 조흡니다. 『바스 라우더-』도『코딕-』가튼바 래올이 잇서지만 지금은 국산품 한가지박게업습니다.

목욕나온뒤에……

(三)『바스 라우더-』는그 이름과같이 목욕하고 나온 뒤에 쓰는것이 적식입니다. 하로에 집무에서 해방되어목욕을 한번하고 원늘에발르면 참 기분이조흡니다. 목욕은『다루겐파우더』래도조흡니다 잠간 어린에시대를돌아간듯한 기분입니다.

향수로땀내를업새려면……

(四)향수를한방울식목에떠려트리고 땀내를 업새는것도한 방법입니다마 너무 노골적이면 도리허 실흔 느낌을줍니다 다 남자인경우에는『로손』이든지 머리에뿌려두면 조흡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바법으로이용할려면『로-숀·포마-드』는쓰것을 쓰는대도『직구』만으로내세조흡것을쓸것입니다. 그러면자기도 남도 다 기분 조흡니다.

(五)또한가지 땀 이야기입니다만 땀이 만이 난다고와이샤쓰를 하나 입는것보다 이샤쓰미테 속샤쓰를 하나바쳐입는것이 조흡니다. 그렇타고『런닝샤쓰』는 재미업습니다. 짤은소매달린것이조흡니다 와이샤쓰에 땀이 잔득밴것보다는 기분상좋다운것입니다.

★일광의살균력

햇비체 살균력은 다 아시다시피 우수한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얼마큼 쪼이면 충분할가요. 여름에 내려쪼이는 햇볏은 두시간이면충분합니다. 될수잇는대로 지면에서 떠러진 장소를 골라서 한번 그늘에서 시키지 안흐면 이부자리든지 의복의 감이 상할 염려가 잇습니다.

맵씨나고시원한 "레-스·타-반"

보기만해도 시원한『레-스·타-반』을 하나 만드러 쓰시면 어떠캣습니까 힘이 업고 누구에게든지 어울리니퍽 파움에 드실것입니다.

× ×

만드는 법은 퍽 간단합니다 먼저『레-스·가-덴』만드는 천가튼 시원한레-스를 넓비 사십『쎈치』하고 기러 팔십『쎈치』쯤 준비합니다. 올들긴 한끗을 가튼색으로 아서 잘매무새를 지어노흡니다.

× ×

다음은 압이마에 머리를밧친수를 젭니다. 그치수갠만큼을 남기고 남어지는 다짤러서, 올이 안풀리게 가튼색의 실로얽고 남어지는 반쪽으로 마릅니다. 마른 자리는 다호가 선초습니다. 이러케하면 다된 셈입니다.

그다음은 거홀들보고 쓰는 연구를 하여야하는데 먼저호아 잡아당긴것을 아프로아게 하고 반쪽으로 말른곳을 뒤로해서 서로 솔치여만두 아프도롤리고 동킵니다 남어지는 뒤로집어너허도조코 또처올러 좀 만히넘겨노흔다가 나비모양으로매여도조습니다.

× ×

이것을 만드는감은 진짜그물모양으로하면 떡조치안만흔 금제품이니까 하는수 업고 다른질로된『레-스』를 쓰는수박게 업습니다. 이『타-반』은 경쾌하고 머리가날려갈 염려도 업고 또 모자전이 업는만큼 누구에게든지 어울립니다. 간단한『파-마』에도나 물론 간단한『파-러』에도다 갈수 잇습니다. (사진은 레-스·타-반의 모양)

두엇다살려쓰자 세루로이드 제품

폐물이용에도종종이잇다

깨여진『세루로이드』장난감 또는 다쓰사진필림은『세루로이드』의 재미잇는 폐물이용법을소개하여드리겟습니다.

O—O

방수제(防水劑)……이 『세루로이드』를잘게 깨트려 『아미루』또는『아세톤』에다 녹입니다. 『밀필』은그전에따거운물로『제라틴』에서처버리고 병에다녀허서한시간쯤막어두면 호물호물해지면 이것을 여러가지물건에 바르면방수제가됩니다. 쓰다가만일굳어지거든 [illegible] 다시 용제(溶劑)를너허 열리면 됩니다.

사용법……헌『세루로이드』를 녹인때에는 헌구두에 바릅니다. 하면 구두거속에열분『세루로이드』껍질이 생겨 비를맞어도 물이 들시안코 먼지가무더도 드럽지안허서 어제든지 깨끗하게신을수가 잇습니다. 여기에도아연화(亞鉛華)분 친분을 너흐면 더욱 히여저서 조흡니다.

O—O

맥고모『파나마』모자가튼데는 투명한 체로흡도 바르거나 물뺑는것으로 빼으면조흘니다. 그러면 거드로 보기는 조곰도 변함이업고 또방수할을가지니 소나기를만나도 놀래어 뛰어갈일이 업슬것입니다.

O—O

『파이버-』제의 『숫쓰케이쓰』나『핸드백』이 낡거짓슬때에도 이것을칠하여 끔게할수잇습니다. 이럴때에는 각각 감의색에 물감을 드러주어야 됩니다. 축 용액(溶液)에 그색의 물감을 타는것인데이때 물감만으로는 광선이 너무 비처서 빗갈이 끔지안코니까 일단 흰 안료를 탈필요가 잇습니다. 그러면 광선이 반사되어 빗갈이 선명해집니다.

O—O

또 무색『세루로이드』를 꼭 엿슬때는 그것이 푸른비치면 노란 물감를다서 푸른색을만들도시 배합하여 따라 다른 빗갈로 할수도잇습니다.

응용……이러케하여 물감을탄 용액으로 책보 또는 사무복의 여러분의 이름을 써넛는것도 한가지 이용법입니다. 또 어린이 압치마며 행주치마에도 발르두면 매우 꿈고 따라서 방수성도 생겨 펴좃습니다. 이가튼것은 빨래할때에도 세게 문질르지안흐면빠지지 안습니다.

때하는법……요즘 대유행에따라『세루로이드』제품이 부쩍 늘어왓는데『세루로이드』그릇이 깨진것을 이용액을 부면 그 붓칠것이 열는 눈에 떠이지안습니다. 또는나무더가창래 가른것도 붓습니다.

夏期家事講習會

講習課目 ❶洋裁縫(理論과實際) ❷料理 講師·金貞子氏

時日·八月三日—十九日(每日午後一時—四時)

場所·朝鮮文化學院講堂(西大門町)

會費·三圓(婦人에限함)

主催·興亞家政女學院

後援·朝鮮日報社學藝部

民書案內 "토마쓰·만"의 時代의要求

崔載瑞

▼…이冊은『토마스·만』의 論文集『非政治的人間의 考察』『時代의要求』『巨匠의 苦惱와 偉大』等에서 譯者가 選擇하여 翻譯한 評論集이다. 譯者는 佐藤晃一郞氏가 [illegible]

▼…이른바 全世界에 이름을 알리워져 있는 老大作家로『만』만큼 時代의要求를 [illegible] 『나치스』 獨逸을 自進退去하여 지금 米國서 執筆生活을 繼續하고 있는것은 世上이 周知하는바이지만 그 政治에 對한 [illegible]

▼…이冊中『歐羅巴에 告한다』[illegible] 文化擁護에 獻身하고 [illegible]

▼…이冊은 筆者가 年前에 本紙上에서 紹介한 일이 있는 [illegible]『世界主義』와 [illegible] ▼…그러나 "만"의 愛讀者 [illegible]

語學往來

片石村

逃亡

×…"피-레"라는자조 [illegible] 逃亡했다. 犯罪人도逃亡한다 一種의謀叛意마 [illegible] 旅行에서 [illegible]

少年畵帖

張萬榮

[illegible]

[illegible]

全朝鮮男女中等學校 포스터展覽會

課題 自由 ([illegible]) 使用色無制限

期間 自 昭和十五年十月二十六日 至 昭和十五年十月三十日

場所 和信六階겔러리

受附期間 自 昭和十五年十月一日 至 昭和十五年十月十五日

〔出品送處〕 京城延禧專門學校商友會學術部

賞品

特賞	一人	本賞 本社社長賞
一等	一人	〃 컵及賞牌
二等	二人	〃 컵及賞牌
三等	三人	〃 컵及賞牌
等外	佳作	賞牌

(作品에는 學校名, 學年及 氏名을 明記할일 出品한 作品은 理由가 잇더라도 返還치 안홈 入選者氏名及學校名은 朝鮮日報紙上에 發表함)

審査委員(無順)

朝鮮總督府遞信局宣傳部 金[illegible]
文敎社 吉[illegible]
朝鮮日報社廣告部長 宋[illegible]
和信宣傳部長 權[illegible]
東亞京城三中印刷株式會社 潘[illegible]
延禧專門學校商科科長 張[illegible]

主催 延禧專門學校商友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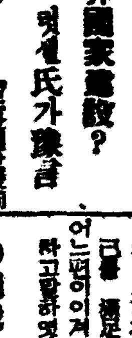
後援 朝鮮日報社事業部

나치쓰 世界國家建設? 멧쎄氏가豫言

[illegible]

●知識의三層階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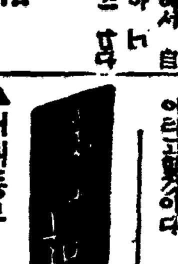
▲어깨동무 ([illegible]著) 어깨동무, 숨바꼭질, 아기자, 저녁놀, 이슬, 낫, 파랑새, 달, 골씨, 사슴아 사슴아, 자장노래 外二十五篇, 목조=체신, 부와나무, 키대보기, 저바다, 색, 한게 두게 세게 [illegible] 發行所京城府 [illegible] 博文書館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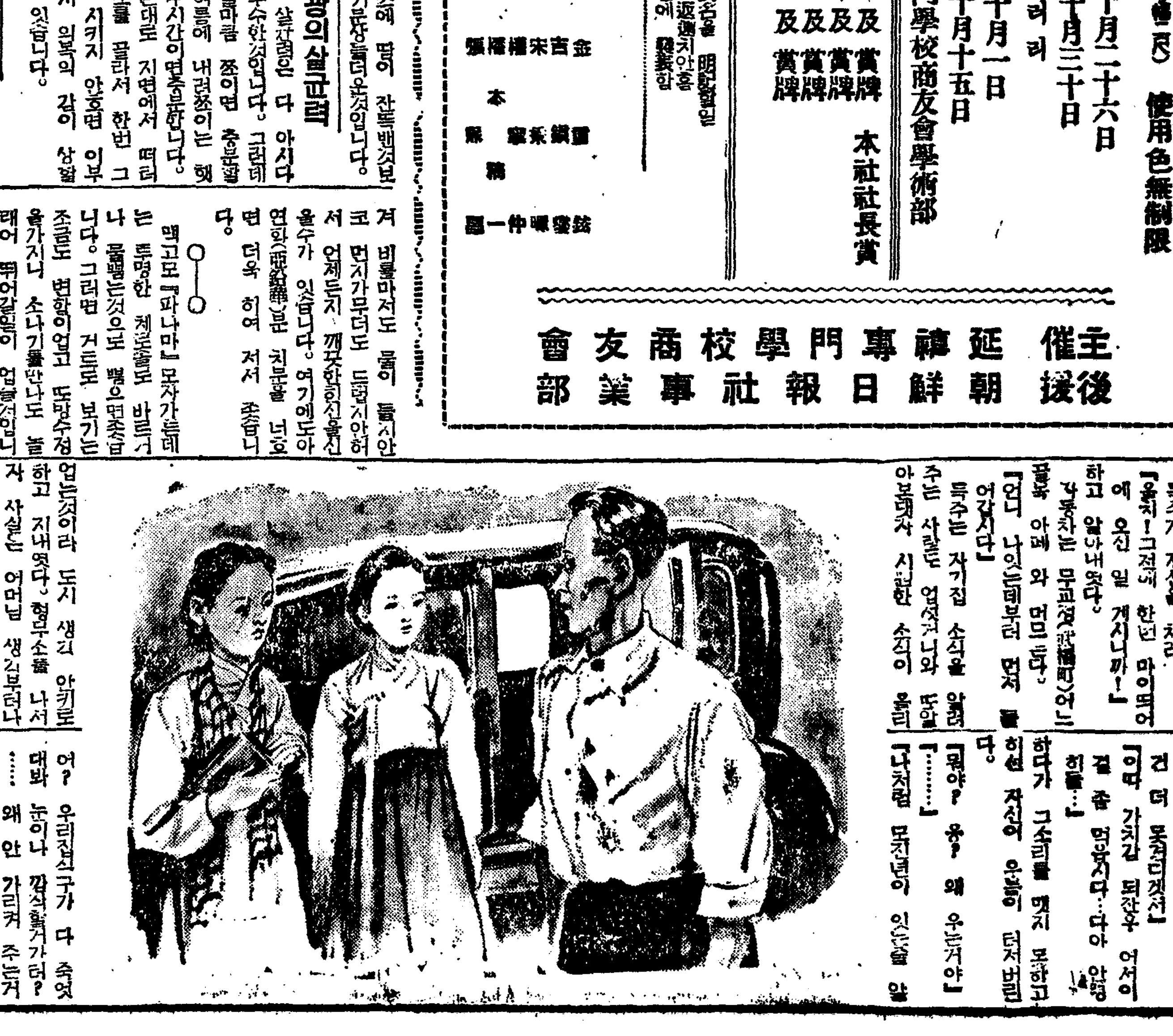
長篇小說 青春茂盛【120】

李泰俊 作

鄭玄雄 畵



마연한두사람(一)



득주와소뢰지와 [illegible] 득주의소개로 [illegible] 인사하엿다.

『선생님 전에 한번 뵈온것도해요.』

『저를요?』

히선의 말이엿다.

『네』

득주가 겨신을 채려

『올지! 그전에 한번 마이뜨어에 오신 일 게시니까?』

하고 알아내엇다.

득주는 무교정(武橋町)어느 골목 아메 와 머므는다.

『언니 나잇는데부터 먼저 들어갓다』

득주는 자기집 소식을 알궈주는 사람은 업섯거니와 뜻밧아보내지시 시원한 소식이 올리업는것이라 도시 생긴 안키로 하고 지내엿다. 헝두소를 나서자 사실은 어머님 생각부터나 히선에게 못고시펏스나 꼿 원섭섭이 눈에 띄인것이다. 그간 집안이 무사할리가 업다. 이번에 당하지된 집이라 이자도 내는 사람이 업는데 그집이 그냥 잇슬리 업고 그집을 내여노앗다면 팔순의 할머니와 눈먼어머니와 염정을 내는것밧게는등이업는 아버지가 지금어떠케들 올하고 어떠테가잇는것이가? 자기는 부모님을위해 할만지 하엿노타고 지난날만 생각하는언니가 더구나 덕지못한 사람의 [illegible] 친정에정흘일 여유가잇섯슬리업다. 생각하면암담할뿐인데 히선이가 저잇는데로부터 들어가자는것이다. 여데 원선생이 잇스메도 득주는다는 의견이엇다 [illegible] 하고 히선이가 치원과, 득주의

『뵙고 지니하게 들어가세우』

『조와요』

『뭘요 좀 폭 쉬십시오 다시 차저오겟습니다 그런대 지금도 대이 전에 거기신지?』

하고 득주에게 못는다.

『아니야요. 득주언니 메칠동안 나헌데 잇슈거야요 이리도 차저오세요』

하였다. 치원은 히선이집을 알고 내일 차저오는다는 약속으로 그냥 돌아갓다.

뉘집 사랑채엿다. 방하간, 마루하간. 마루에 걸러안저 득주는 멀쓰 히선의 손을 붓들엇다.

『히선아!』

『……』

『히선이 오쯤 질투 갓나!』

『언니두!』

하고 흘이는 신을 못 벗고부터…

『우리집은 어떠케 됏슴?』

『집? 차좀 가보시워…』

히선은 집이란 무르면 작고 떤얼을 꺼내엇다.

『히선이! 괜찬어, 나 아리커 줘요 아는게 낫지 좋냐소리 건 더 못견듸겟서』

『이때 가치감 되찬우 어서이걸 좀 먹엇다…다아 양히들…』

하다가 그소리를 맺지 못하고 히선 자신이 우름이 터저버린다.

『뭐야? 응? 왜 우는거야』

『……』

『나처럼 모진년이 잇는줄 알어? 우리집식구가 다 죽엇드라? 내비 눈이나 깜작할거가 터? …… 왜 안 가리켜 주는거야?』

『그런 부모님 다 원수지 뭐유! 어머님들아가섯다우……』

『……』

득주는 정말 울시도 눈물도 나지 안핫다. 얼굴이 백지처럼 질리면서 [illegible] 눈만 멀둥히 뜨고 잇다가

『언제?』

하고 못는다.

『언니 입갈퍼지 서달바이가 이른날이라우. 언니네언니가 와 한정해드리구 내려갓다우』

『그럼 산수두 업겟……?』

『그럼!』

『혹!…… 참! 또시프?』

『또시퍼 언니두 참 불쌍해! 언니 그랫두 병은 안 어더 가지구 나왓스니 다행이우』

『왜?』

『폐병이 생겨가지구 나와 요양원에두 누가 돈을 대야가 익지 안우?』

『……』

『참, 왜그러케 떠허얻밧뉴?』

『그래 지금은?』

『저 무밖 어느절이래 좀 남들어와 벌구 벌다가 더해침 또 번돈으루 나가 약먹구잇구 그러니 아주 나보겟수!』

『우리 집은?』

『팔렷지뭐! 지금 저 시구논 박 사글세방으루 게시다우 언니네 언니가 한달에 십원씩인가 부치온대방엔 내가 [illegible] 어드리구……』

『……』

득주는 그러케 먹고싶던 이밤과 생선이나 한술도 뜨지못하고 쓰러저울고말았다.